

기획취재

92년 총학생회 비운동권후보의 움직임 살펴본다

선거, '민주' 결실의 밑거름

I. 서론

6.3의대사태 이후 학원안정화 대책(이하 학안대)에 의한 학생 운동단압이 현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번 92년도 각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교육부는 "안정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비운동권후보의 당선 유도를 하라"는 지침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인지역 학생과장회의에 시달렸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대학생협의회(이하 전대협)를 약화시키고 전체 운동세력의 결속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에 비운동권후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구도의 일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91년도 총학생선거의 실태

90년 선거에서는 전국 60개 대학에서 비운동권후보가 출마하였으나, 91년도에는 40여개 대학에서 출마, 10여개 대학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강원, 대구, 영남, 전북, 충청지역을 예년과는 달리 대다수 지역에서 다수의 출마자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5개 대학이 후보등록을 마친 경인지역에서는 5개 대학 모두에서 비운동권 총학생회 후보가 출마하

였고 17개 학교에서 선거일정을 공고한 대구·영남지역도 경북대, 효성여대, 대구교대를 제외하고 14개 학교에서 대거 출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충청지역을 타 지역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호남지역에서도 선거일정이 공고된 13개 대학중 전북대를 제외한 12개 대학에 출마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만 후보등록이 마감된 20여개 대학중 숭실대, 국민대등 4~5개 대학에서 출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선거일정이 공시된 80여개 대학중 50여개 대학에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후보들이 등록을 마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후보마감이 되지 않은 40여개 대학의 후보접수가 마감되면 지난 90년도의 60여개 대학보다 더 많은 70~80여개 대학에 비운동권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후보간 충돌 및 흑색선전·폭력행사 등이 재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예년 선거에서 학생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나 비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폭력사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91년도 총학생선거 당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특수성을 가진 영동지역의 경우, 비권후보에 의한 불법·폭력선거의 폐해는 타지역에 비해 심각했다.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 험난한 과정

을 통해 민주적인 총학생회를 건설한 강릉대의 경우 90년 총선거 당시 개표장 난입, 후보자 납치, 투표용지 소각, 무투

회 위원들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테러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4~5명이 심한 구타를 당하고 이들중 김동규(국문

이글은 90년, 91년의 총학생회 비운동권후보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현시기 학원안정화대책속에서 92년 총학생회선거의 중요성과 비운동권후보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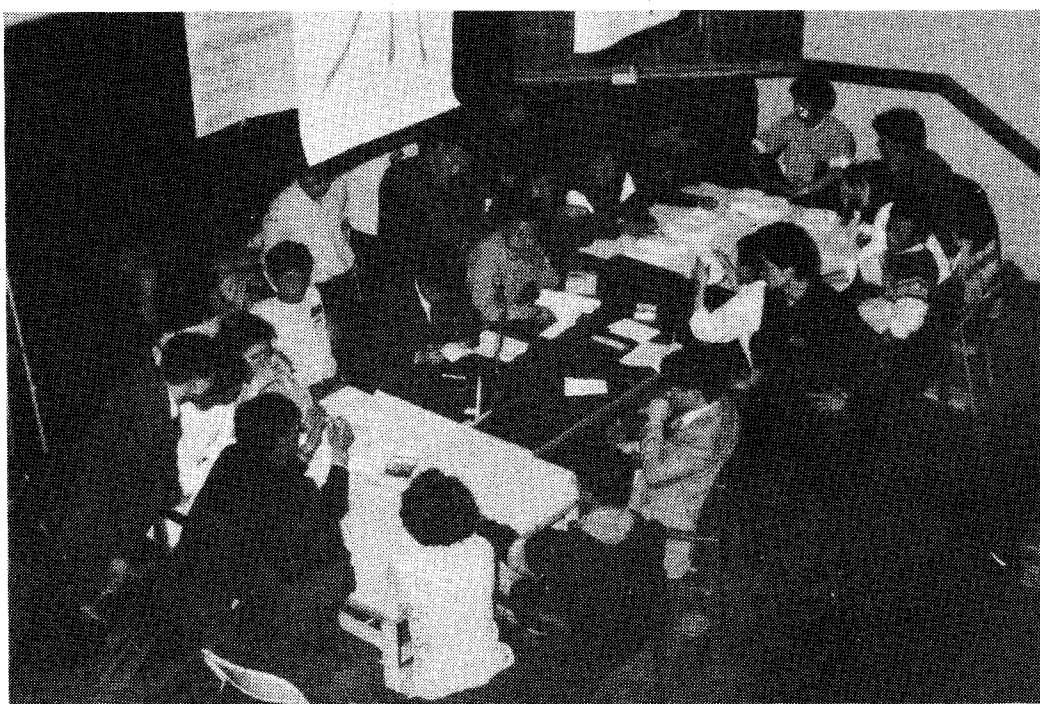
외부세력 사주받은 후보 출마, 전대협 약화 의도
선거과정중 후보간 충돌로 폭력사태 빈발해

표 당선공고등 폭력과 부정선거가 나타났다.

또 관동대에서는 후보등록원서 요구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

·87)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감금당하는 등 중상까지 입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되어 '한민족 대학생연합'이라는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학생들의 반발이

진주지역의 전문대는 동문을 중심으로 한 폭력세력(일명 '소나비')이 선거기간중에 비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잡는 진주·충무지역 총학생회협의회에서는 운동권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총학생회 선거개표일에 경상대 학우들 40명을 파견하였다.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고 운동권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 체육학과 학생들과 '소나비' 회원들로 이루어진 1백여명의 폭력배가 후보자를 보호하기위해 경상대학우들이 대거하고 있던 강의실에 난입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앞서서 쉬고있던 학우들은 약5분간의 난동으로 5명이 중상을 입은 정도로 크게 다쳤다. 실제로 부상자는 자해행위를 한 폭력배 몇명을 빼고는 거의가 지원년간 학생들 이었다.

그러나 사건 뒤 30분만에 나타난 경찰은 폭력사건의 실질적 주동자들이 비권지지 폭력배들은 가해자 일에도 불구하고 연행 한명 안 한 반면 진주 경상대 학생들은 19명을 구속시키고 14명을 불구속, 12일로 예정된 총학생회선거 후보들 31명을 수배조치를 통한 검거령을 내렸다.

총학생회에 대한 기성 제도언론의 관심은 각별한 듯하다.

선거와 관련된 제도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이번 서경대학교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사퇴보도에서 보듯이 학생운동권의 분열과 폭력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내 문제에 대한 이견차이를 과대 포장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운동권후보가 대거출마한 90년 선거의 경우 운동세력의 정파간 주도권 싸움, 조직간 이념대결등이 치열하다는 보도로 학생운동권의 조직이거주의, 정치편향성등을 과대선전했었다.

90년도 총학생회선거 기간에 대검찰청 공안 합수부는 "학원 및 재야, 출판, 노동계에 침투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세력 1백26명을 구속했다"는 보도로 학생운동권을 고립시키려는 보도태도를 보이게되기도 하였다.

또 올해는 외대사건과 소련사태를 기회로 학생운동권이 폭력화되고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해 학생회 또는 학생운동의 존립자체를 문제삼는 등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여론공세를 동반한 선거에 즈음하여 정권의 공

92~3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정권에서나 학생운동측에서나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92년의 4대선거 일정을 맞아 해야 하는 민족민주 세력에게는 민주대연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여 95년에는 민족적 연합인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하는 과제가 있고 기존 기독교세력인 미국과 행정권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토대를 구축하는데 그 의미성을 찾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당면 변혁운동에서 청년학생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운동의 통일단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회 선거는 유세기간중 학생대중의 현실인식과 의식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운동의 단일한 대외인전대협을 강화시키고 학생회선거의 본질적인 부분인 학생대중에 대한 선전활동을 병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 선거를 왜곡하고 있는 정권과 언론의 의도를 폭로하고, 극단적인 노선갈등이나 학생운동의 좌경폭력화를 흑색선전하는 잘못된 현실을 변혁해야 할 임무도 지닌다. 학생회가 학생운동권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지만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단체의 사주를 받아 학생대중을 개량화시키거나 대표성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학생은 역사적 과제를 인식해 어떠한 간섭이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며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공동기자단〉
〈文責: 전만환 記者〉

인터뷰

경상대 부총학생회장 이인만군을 만나

왜곡된 '지리산 결사대'의 진상

—진주 경상대 학우들이 진주전문대에 파견된 배경은

▲예년부터 진주지역 전문대 선거에서는 운동성향을 가진 많은 후보들이 학우들의 의사가 아닌 폭력조직의 협박과 테러에 의해 낙선되거나 후보를 사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전문대의 경우도 민주총학 후보의 운동원의 대다수가 여자들이었는데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들을 일삼아 도움을 여러번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과정은

▲저희 경상대 학생 40여명이 진주전문대에 도착한 시간은 개표가 끝나기 10분전쯤인 3시40

분경이었습니니다. 투표결과 민주후보측의 당선이 확정되려는 순간 폭력세력(소나비)과 체육학과 일부학우등 1백여명이 자정거 체인, 등산용 칼, 각목등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경상대 학생들은 호신용 쇠파이프조차 꺼내지도 못하고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학교 임용일(농경계·2)군이 머리가 깨지는 등 10여명의 학우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30분만에 경찰이 와서 가해자인 폭력배들은 연행하지도 않은 채 저희 학우 33명만을 연행하

였습니다. 이 전까지의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학우들이 경찰이 오는 것을 보며 "이제는 살았다!"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의 조사과정중 가혹한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근거는

▲연행된 33명의 학우들은 11명씩 3개조로 분리돼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의 내용이 5월투쟁 당시 진주 MBC방송, 지리산 결사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궁당했고,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 협박들이 행하여 졌습니니다. 지난 9월달에 본교 이일균 총

이인만
(경상대 법학·4)

학생회장이 진주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경찰서를 탈출했습니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관계자 여러명이 문책을 당한데 대한 보복성 조작사건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받던 한학우가 경찰관으로부터 "경상대 운동권에 대해 오래동안 불러왔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명의 학우들이 가슴부위에 시커멓게 단것 같은 상처들

이 있었는데 그 상처는 전기고문에 의한 상처라고 하더군요.

—현재의 상황과 대응은

▲현재 19명의 학우가 구속되었고, 14명이 불구속, 그리고 31명에 대해 수배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1명의 수배자중 지리산 결사대와 아무 관계도 없는 9개 자치단체장 후보중 읍면과 체대학생회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배령이 떨어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상대 학생운동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정권측의 작태가 여지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자 진·총총협과 서부경남 국민연합, 전교조, 구속학생 학부모 등으로 '10.10 진주전문대학 사태 진상규명과 부당구속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공동기자회견, 진주전문대 폭력가해자 맞고소, 제도언론 항의방문등의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지방 일간지 일부에서는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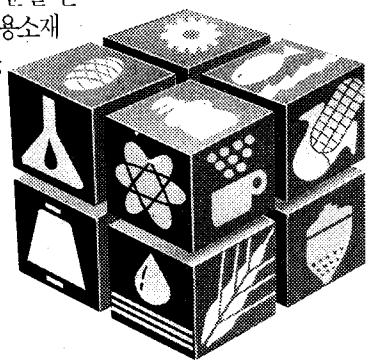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들은 왜 고생을
사서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줄 아는 젊은이—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67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을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품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속에
내일을 이룩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양

●주식회사삼양사(化纖, 雪糖, 飼料, 水産, 精密化学)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도당주식회사 ●삼남유화주식회사
●삼양유정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다원산업(아미버) ●삼양종합연구소 ●양평회 ●수당정화회